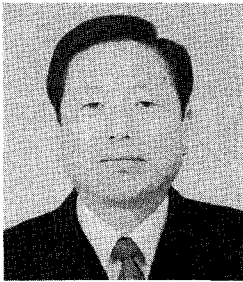


## 소외된 양계정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적 조치 필요



김 동 재  
(송정농장 대표/이천육계분회장)

21세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시작되는 재미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에는 불황도 끝나고 질병도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쳐진 농업정책은 고위공직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게 이루어져 왔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농업(축산) 정책에 고마움을 느끼기 보다는 분노를 느낀 적이 많이 있었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화업은 등록이 아닌 허가업이었고, 종계업도 등록제 였다. 또한 육계업도 한때는 1만수 이상은 등록을 받았었다.

비록 법적 제제는 없었지만 권력있는 한 두업체의 로비 때문이었는지 슬그머니 허가제가 폐지되고 자유 신고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불황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최근의 현실에서도 과거의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이 올 수 있었을까? 즉, 종계의 쿼터제가 예전에 있었다면 종계가 포화상태(종계 2003년 생산 잠재력 600만수)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2003년, 2004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축산업 규모화에 따른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축산업 등록제의 법적 관리는 무조건 환영해야 할 일이다.

육계업 등록제 규모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만수 이상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2~3만수 이상이면 전업농으로 분류되며, 1만수 이하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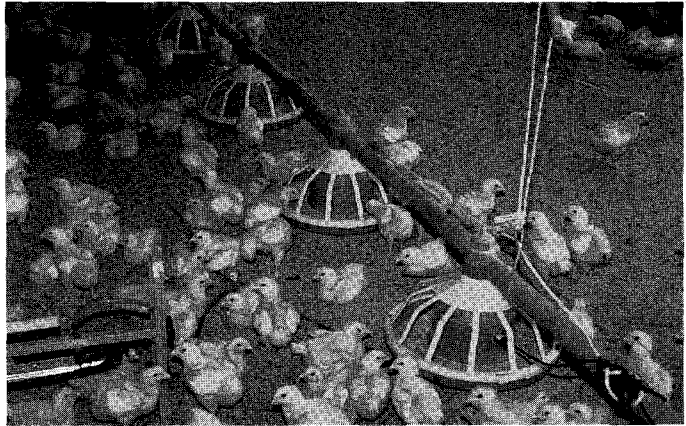
육하는 사육농가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선후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부지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 계사가 대부분인 육계업은 무척 영세한 편이다. 저금리의 정책자금은 물론 축산농가에 지급한 환경 개선제도가 무허가 축사라고 해서 단 한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소외시 되어 왔다. 해당 시, 공무원에게 항의했을 때에도 무허가 축사를 인정하는 미명 아래 제외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축산업 등록을 받아 줄지가 의문이다.

둘째, 닭 질병에 있어서 원종계로부터의 원초적인 질병차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육계인들은 법정 전염병은 물론이고 소모성 질병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해마다 늘어가는 것이 비단 국내 자체에서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로 인한 생산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모성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외화낭비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셋째, 정부에서는 축종별 차별화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광우병, 구제역, 콜레라 등으로 수백억원을 소나 돼지 농장에 지원하면서 정작 양계농가에는 소독제 한번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뉴캐슬



백신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정작 필요할 때는 구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 목장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몇 년전 공급해준 소독약 이외에 환경개선제까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닭을 사육하는 자체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정부에서 배려해준 뉴캐슬 백신도 대가축 질병에 문혀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병발생으로 인해 폐사되는 손실액만 해도 수십억원이 넘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질병에 걸린 닭을 출하하는 농가의 마음이 편안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농가에서 출하한 닭고기는 내부모, 내형제, 내자녀들도 먹고 있다. 항생제에서 해방되고 위생관리가 철저한 양계산물을 우리 모든 양계인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싶어한다. 법적인 제제보다는 선도적인 보호를 바라며, 양계 질병도 광우병, 구제역, 콜레라에 준하는 방역과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해 본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정부에서는 새롭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